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ОЛИЙ ВА ЎРТА МАХСУС ТАЪЛИМ
ВАЗИРЛИГИ**

САМАРҚАНД ДАВЛАТ ЧЕТ ТИЛЛАР ИНСТИТУТИ

Шарқ тиллари кафедраси

**МАМЛАКАТШУНОСЛИК
(КОРЕЙС ТИЛИ)
(Маъруза матнлари)**

Самарқанд-2015

ББК 74.202.2, 81.2.(-5)-9

Тузувчи: Шарқ тиллари кафедрасининг ўқитувчиси Баёнханова И.Ф. “Мамлакатшунослик” (маъруза матнлари). – Самарқанд: СамДЧТИ нашри, 2015. ... бет.

Ушбу маъруза матни Шарқ тиллари кафедрасининг ўқитувчиси Баёнханова И.Ф. томонидан тузилган. Унда Корея тарихи, аҳолиси, иқлими, маданияти, тили, дини ҳақидаги маълумотлар ва синов текстлари жамланган. Маъруза матнлари Самарқанд давлат чет тиллари институти Ўқув-услубий кенгашининг 27 августдаги мажлисида муҳокама қилиниб (№1- қарори), корейс тили таълим йўналиши талабалари учун қўшимча ўқув адабиёти сифатида нашрга тавсия этилган.

Такризчилар: ф.ф.н., доцент Раҳимов А.С.

ISBN 978-9943-4396-1-0

Самарқанд давлат чет тиллар институти нашри, 2014

I. 개괄 : 기원, 기후, 지리, 인구, 자원

플랜 :

- 1. 기원
- 2. 기후
- 3. 지리
- 4. 인구
- 5. 자원

1. 기원

| | | |
|---------------|--------------------|-----------------------------|
| 50만년전 | 2만5천년 | 청동기시대 |
| 한국땅: 인류 등장 | 현생인류:해안 강가 중심으로 | 고조선:단군왕검(중국의 요임금 시대)-개천절 |

중앙아시아
몽골로이드
이동.유입

- * 약 50만년전부터 두 발로 걷고 도구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주
- * 후기구석기인 2만5천년전부터 현생인류 거주. 해안과 강가를 중심으로
- * 신석기 시대 거치면서 중앙아시아로부터의 몽골로이드가 한반도로 이동, 융화
- * 청동기시대에 단군왕검이 조선 건국(이는 신조선과 구별 위해 고조선). 중국의 요임금 시대. 이를 기념 개천절
- * 기원 : 일본인을 포함한 북방계 몽골인종집단으로 추정.
 - 몽골로이드의 특징 : 얼굴에 두터운 지방층. 쌍꺼풀 없고, 검은색의 직모, 광대뼈의 돌출, 흑갈색의 눈동자, 몽고반점
 - 몽고반점 : 동유럽의 헝가리, 터키와 중앙 아시아, 시베리아, 만주, 몽골, 인도 북부의 부탄과 티베트, 중국 양쯔 강 이북 지역 그리고 한국과 일본 및 아메리카 대륙의 이누이트와 원주민(아메리칸 인디언과 인디오)들에게도 공통으로
- * 한민족 : 오래 전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민족 단위를 형성하고 단일 언어가 통용되면서, 농경 생활의 정착과 함께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전통 문화를 이룩

한국에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약 50만년 이전부터이며, 현생 인류는 후기 구석기인 약 2만 5천 년 전부터 해안과 강가를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주변의 세력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명이 발전되었으며, 초기 구성원들의 이동, 외부로부터의 세력 유입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반도 일대의 최초의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조선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불려서 서기 1392년 건국된 조선 (신조선)과 구별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중국의 위서를 인용하여, 단군 왕검이 요임금과 같은 때에 고조선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구한말과 대한민국 초기에 단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조선이 세워진 때를 국경일(개천절, 10월 3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동북아시아에 문화적인 특색이 나타난 것은 후기구석기 시대의 세석인 기술을 가진 몽골로이드 집단으로부터이다. 세석인 문화의 기원은 시베리아(바이칼 ~ 알타이), 북중국, 만주 및 극동지방 등의 설이 있다. 이들 문화는 약 2만 여 년 전의 시기에 확산된 돌날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세석인 문화의 정착은 15,000여 년 전에 해당된다. 이러한 토착화된 세석인 문화를 기반으로 만주와 한반도의 고유한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구석기 시대 이전에 이미 한반도에는 토착인이 살고 있었고, 이후 후기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아시아로부터의 몽골로이드가 시간 차를 두고 이동하여 같은 인종으로 서로 융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한민족은 오래 전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민족 단위를 형성하고 단일 언어가 통용되면서, 농경 생활의 정착과 함께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전통 문화를 이룩하였다.

또한 일제 강점기까지도 함경도와 간도 일부 지역에 여진족인임을 자처하며 여진어를 쓰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해방 후 완전히 동화되어 사라졌다.

유전자 정보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응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로 한국인은 일본인을 포함해 북방계 몽골인종집단으로 분류되어 있고, 남태평양 집단의 유전자와도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져 있다. 이들 종족은 유럽 인종은 아니고 유럽 인종의 분리 이전 형태인 오스트랄로이드, 즉 현재 호주의 원주민과 같은 계열로 일본 북해도의 아이누, 사모아, 하와이 등의 태평양의 도서 인종인 폴리네시아인과 인도의 드라비다 족과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인종과도 가까운 기원전 2만 년 이전에 이미 아시아에 널리 살던 원주민들로 밝혀졌다.

그 후 제4빙하기 이후 우랄 산맥 서쪽 바이칼 호 근처에 살던 황인종인 북부 몽골로이드가 기원전 2만 년부터 진출하여 혼혈을 이루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들 몽골로이드의 특색은 빙하기 가장 추운 지방에서 생활하던 까닭에 얼굴에 두터운 지방층이 있고, 모든 포유류 눈에 있는 쌍꺼풀이 없으며, 검은색의 직모와 광대뼈의 돌출, 흑갈색의 눈동자와 유아기 둔부와 등에 나타나는 녹색의 일명 몽고반점이라 하겠다. 말레이 인종을 비롯한 다른 인종에 없는 이 몽고반점은 동유럽의 헝가리, 터키와 중앙 아시아, 시베리아, 만주, 몽골, 인도 북부의 부탄과 티베트, 중국 양쯔 강 이북 지역 그리고 한국과 일본 및 아메리카 대륙의 이누이트와 원주민(아메리칸 인디언과 인디오)들에게도 공통으로 나타난다.

2. 기후

한반도는 북위 33~43도, 동경 124~132도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를 보인다. 겨울에는 편서풍에 의해 시베리아와 몽골 고원의 영향을 받는 대륙성 기후를 띠기 때문에 겨울이 건조하고 무척 춥다. 여름에는 태평양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의 특색을 보여서, 여름은 습하면서 덥다.

3월 말에서 5월에 걸쳐 포근한 봄날씨, 6월경에서 9월 초에는 무더운 여름이(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장마철이다),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는 화창하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 그리고 11월부터 점차 추워지기 시작하여 1, 2월에 몹시 추운 겨울 날씨를 보인다. -> 3-5 / 6-9초(6말-7중) / 9말-10말 /

중부 산간 지방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 평균기온은 10~16℃이며,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은 23~27℃, 5월은 16~19℃, 10월은 11~19℃, 가장 추운 달인 1월은 -6~7℃이다.

비는 주로 여름에 많이 내리는데, 연 강수량의 50~60%가 이때 집중된다. 이를 장마라고 한다. 강수량은 중부 지방이 연평균 1100~1400mm, 남부 지방이 연평균 1000~1800mm, 경북 지역이 연평균 1000~1200mm이다. 경남 해안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800mm이며,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450~1850mm이다.

습도는 7월과 8월이 높아서 전국적으로 80%정도이고, 9월과 10월은 70%내외이다.

태풍이 북태평양 서부에서 연중 28개 정도가 발생하며, 이 중 2~3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3. 지리

한반도의 남쪽, 서쪽, 동쪽은 각각 남해, 황해(서해), 동해와 맞닿아 있다. 황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다. 서해는 간만의 차가 크고 갯벌이 발달했다. 남해는 수많은 섬이 있어서 **다도해**라고도 불린다. 이에 비해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으며, 간만의 차가 적다. 대한민국은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열도와 마주 보고 있고,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마주 보고 있으며, 육지로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마주 보고 있다.

서해의 대표적인 섬은 한강 강어귀 앞에 위치한 **강화도**이다. 강화도에는 마니산이 있다. 동해의 섬 중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유명하다. 남해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가 있다. 제주도에는 지금은 휴화산인 **한라산**이 있다. 한라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국토의 약 70%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동부지방에 높은 산들이 많다. 동부지방에 한반도의 등줄기로도 불리는 **태백산맥**이 있고, 대표적인 산으로는 **설악산**이 있다. 태백산맥의 남서쪽으로 **소백산맥**이 이어지고, 대표적인 산으로 **지리산**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강으로 위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이 있다. 한반도의 대부분의 강은 한강처럼 산지가 많은 동쪽에서 평평하고 낮은 구릉이 대부분인 서쪽으로 흐른다.

4. 대한민국의 인구

2005년 인구 피라미드 구조 / 2005년 통계청 조사 자료 기준

2005년, 대한민국의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의 총인구는 **4727만 9천여 명**이다(이 수치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내국인은 99.5%, 외국인은 0.5%이다.). **남성 인구**(2362만 4천여 명)는 **여성 인구**(2365만 5천여 명)에 비해 3만 1천여 명의 인구가 적다.

광복 직후에는 해외 동포들이 귀국하고, **6.25전쟁** 때에는 북한 동포들이 많이 월남했는데 **광복 직후에는 약 180만 명, 6.25전쟁에서는 약 100만 명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1960년대 이후로 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대도시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농촌의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또는 많은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게 되는 **도시화 현상**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쾌적한 생활을 위해 전원주택이나 농촌으로 귀향하는 **역도시화**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수는 **매우 미약하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여전히 이촌향도가 진행되고 있거나 농촌이 도시로 변화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1970년 이전까지 5백여만 명이던 서울의 인구는 서울 올림픽이 열린 해인 1988년에 1천만 명을 넘게 되었다.** 현재 수도권 거주인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227만여 명으로 48.2%를 차지한다.** 수도권 거주인구는 2000년보다 141만 명(6.6%)증가 했다.

인구피라미드 유형(오른쪽 그림 참조)은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항아리형**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인구 밀도는 **474명/km²**이다. 인구 밀도는 2000년보다 10명이 높아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81.5%**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선진국과 대등하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과거와 달리 변화된 점이 많다. **이혼율은 61.8%**로 2000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0~14세 사이의 연령별 구성비는 6.8% 감소했다.[1]

한국은 **1970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2% 미만으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5년 이후 인구 증가율은 1% 이하로 떨어져 사회 및 경제 구조에 변화에 많은 문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7년 현재 출산율은 한가구당 1.08명으로 거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1949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행된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에 따른 각 지역별 인구 현황이다. 직전 센서스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1944년에 수행되었었다. 현재 이 자료의 원자료는 최근 구축된 국가통계포털[2]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동식물

도시의 가로수로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대표적이다. 산에서는 **소나무와 아까시나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시의 역 주변이나 공원과 거리에는 **비둘기와 참새**가 많다.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 가면 **까치, 까마귀, 제비, 두루미** 등 여러 새를 볼 수 있다. 봄이 되면 노란 개나리꽃과 흰 벚꽃을 볼 수 있고, 가을이 되면 노란 잎을 자랑하는 은행나무와 빨간 잎의 단풍나무를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멸종 위기의 동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 중이다.

6. 천연자원

석탄, 텅스텐, 석회석 등이 많이 있지만 석회석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자원 이용성이 떨어진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동력 자원 및 공업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자원의 가격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석유는 매장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요한 단어 : 기원, 기후, 인구, 출산률, 청동기, 몽고반점, 온대성기후, 태풍

참고문헌:

1. (인터넷자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대한민국 정부, 교육, 역사, 정치, 경제, 인구, 언어와 문자, 문화, 사회 자료
2. “한국어 연수교재”, 2001, 국립국어연구원,한국어세계화재단,한국문화예술진흥원.

II. 제반사항 : 언어, 문자, 종교, 교통, 의료

플랜 :

1. 언어 & 문자
2. 종교
3. 교통
4. 의료

1. 언어와 문자

한국의 언어인 **한국어**는 계통이 밝혀지지 않은 **고립된 언어**이지만,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준어는 남쪽에서는 서울 표준어이며, 북쪽에서는 평양 문화어이다. 한국어를 표기하는 글자로는 **한글**을 사용한다.

공용어는 **한국어**이다. 한국어 표기에 쓰이는 문자인 **한글**은 **세종대왕**이 설립한 **집현전** 학자 **신숙주** 등과 함께 오랜 연구 끝에 **세종대왕**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만든 한국어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 체계이다.

원래의 명칭은 **훈민정음**(訓民正音)으로 1446년에 반포하였다. 한글은 한문과는 달리 각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기호로 모여 한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들이 단어를 만드는 **표음문자**이다. 그 전에는 **삼국 시대** 이전부터 사용하던 **한자**(漢字)가 있었으나 한국어의 문법과 발음을 제대로 표현하기는 힘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를 문자로 표기하기 위한 **향찰**, **구결**, **이두** 등을 사용했었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한자는 **양반**(兩班)층 및 관공서에서 계속 사용된 반면, 한글은 일반 백성들에게 점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야 비로소 공문서에 한글이 쓰이기 시작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의 사용이 억압을 받았으나, 1945년 **해방**후 본격적으로 널리 쓰여져 한국문화 발달의 기틀이 되었다.

한국에는 영어나 일본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많지만 대부분은 한국어만 구사할 수 있다. 한자의 경우도 해독할 수 있는 인구는 많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한자 쓰임새가 일본이나 중국, 대만의 한자 쓰임새와 다른 것이 많아 서로 한자로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렵다.

2. 종교

한반도의 전통적인 종교는 불교와 유교이며, 무속이라고 부르는 민간 신앙도 전래되었고, 18세기 이후로 기독교가 중국과 서구 국가 등 해외에서 유입되었다. 또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천도교나 대종교, 원불교 등의 신흥종교가 한국에서 생겨났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었으며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 있다. 유교는 삼국시대에는 통치 이념으로만

받아들였으나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조선시대에 종교화되었다. 현재에는 크리스티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교가 되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위치해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3. 교통

대한민국에는 3,000km에 달하는 26개의 고속도로 등의 도로와 3,000km의 철도 및 광역전철, 지하철 등이 국내 교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3개의 국내외 공항이 국내 및 국제 항공 교통을 담당하고 있다.

4. 의료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된다. 대한민국 전국의 병원과 의원에서는 국가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게 되며 이것에 관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관리되며,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다. 두개의 기관 모두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정책을 심의하고 관리한다.

물론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것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단어 : 알타이어족, 한글, 세종대왕, 훈민정음, 의료보험, 불교, 고속도로

참고문헌:

1. (인터넷자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대한민국 정부, 교육, 역사, 정치, 경제, 인구, 언어와 문자, 문화, 사회 자료
2. “한국어 연수교재”, 2001,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III. 한국의 교육

플랜 :

1. 교육의 단계

2. 교육 역사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교육 활동을 총칭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의무교육이다. 고등학교는 3년 과정이며, 일반계(인문계)·전문계(실업계)·특수 목적 고등학교(특목고)·예술계(예술고)로 분리되어 있다. 고등교육에는 4년제 대학교와 2~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교육을 받는 정규학교 재학자는 1089만명(24.7%), 졸업자는 2987만(67.8%), 중퇴자는 96만 명(2.2%)이고, 졸업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750만 명(24.5%), 고등학교 졸업자는 1263만 명 (41.2%), 대학 졸업 이상은 1050만 명(34.3%)을 나타내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학교 진학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치를 수 있다. 이외에도 각 대학에서는 수시전형,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대학의 요구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교육 시장이 크게 발달되어있어,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매우 많아 그 정도가 정부 예산정도 된다고 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약 2.1%이다.

1. 교육단계

1.1. 초등교육

각국의 학교제도나 교육과정에 따라 그 시기를 어떻게 두느냐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은 주로 만 7세 이후부터 6년 간의 교육을 말한다[1]. 또한 상황에 따라 만 5세부터, 만 7세부터의 취학도 가능하다[2]. 대한민국에서는 의무교육기간으로 부과되고 **초등학교**에서는 전액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만약 초등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초과한 경우 **공민학교**에서 3년간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1.2. 중등교육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에 이은 제 2단계 교육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의 중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이르는 말이며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의 교육도 중등교육에 포함한다.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수업 연한이 각 3년에 달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시작이며, 현재는 모든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화하여 전액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고등학교에 부설된 시간제 통신제 과정에서는 4년의 교육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3]

1.3. 고등교육

고등교육은 대학교육과 대학원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교육의 단계이다. 즉, 고등교육은 **대학교**와 **전문대학** · **기능대학** · **교육대학** 등과 **대학원**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중등학교 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에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쳐 진학하게 되며 종합대학 · 단과대학 ·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서 행하게 되며 수료자에게는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나 졸업증서가 주어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 교육이다.

2. 교육 역사

2.1. 시기 : 광복 후 - 1954년

일본 강점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된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군정을 하게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한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일제시대의 교육과정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채로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내놓지는 못하고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을 제정하고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교수요목기에는 교과와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힘을 실었으며 분과주의를 채택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知力)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흥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조했으며, 일제시대의 잔재를 정신, 생활면에서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의 교수요목은 이를 제정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각 교과별로 가르칠 주제를 단순히 열거하는데 불과하였고, 내용과 수준이 학생들의 지적능력에 비해 너무 높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교과목별 수업시간을 보면 교수요목에 준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에게 융통성을 발휘하게 하였으므로, 운영의 실제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2.2. 1954년 이후 교육과정의 변천

제 1차 교육과정 : 1954년 - 1963년

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 · 공포되면서 법령상의 명칭이 교과과정이 되고, 교과중심과정이 되었다. 1947년 당시의 교수요목은 임시방편으로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수립과 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교과를 기본으로 하여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경험과 생활을 중요시하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런 특색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와 새교육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생활중심 단원으로 부르기도 했다.

1차 교육과정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현실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사회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정부 수립 후 제정하고 공포한 교육법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하였고 특별활동시간을 최초로 배정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편제에 있어서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두 영역을 편성하였고 교과 구성과 시간 배당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반공교육을 강조하면서 도덕과목을 새로 신설하여 주 1시간 씩 필수적으로 교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교과목을 설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과

비슷하게 인문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의 교과 구성에 있어 필수 교과는 동일하고 선택 과목을 달리하면서 공동의 목표 달성과 각 학교의 개성을 신장시키는 데에 노력하였다.

제 2차 교육과정 : 1963년 ~ 1974년

2차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의 수립 당시의 사회의 비정상성, 체제의 미흡함을 들어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또한 스푸트니크 쇼크에 의한 교육의 질 향상이 목적이 되었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정하게 된다. 2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학교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로 파악하여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내용면에서 강조하고 교육과정 운용에 있어 지역성을 강조하여 각 지역사회의 자원을 학습 경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적용은 지역사회에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융통성과 신축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편제상 2차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에서 교과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과의 활동만을 강조한 것에 비해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련의 체계를 갖추게 된 교육과정이었으며 교육과정을 전개함에 있어 체계성을 두어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단위제와 과정별로 선택과정을 두어 인문, 자연, 직업과정의 선택과목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개념적인 수준에서 학교교육을 지배했을 뿐이고, 실제 교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이 눈에 띈다.

제 3차 교육과정 : 1974년 ~ 1981년

제 4차 교육과정 : 1981년 ~ 1987년

인간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방침에 따라 개인교습이나 보습학원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학교에서의 자율학습을 허용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 : 1987년 ~ 1992년

통합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과외금지조치를 해제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 : 1992년 ~ 1998년

21세기 미래상을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제 7차 교육과정 : 1997년 ~ 현재

학생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주 5일 수업제가 넷째 주 토요일마다 시행되었고 2006년부터는 2,4주마다 시행한다. 2009년에는 매주 주5일 수업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단어 : 초등교육, 중등, 고등교육, 교육과정

참고문헌:

1. (인터넷자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대한민국 정부, 교육, 역사, 정치, 경제, 인구, 언어와 문자, 문화, 사회 자료
2. “한국어 연수교재”, 2001,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IV. 한국 역사 : 근대 이전

플랜 :

1. 기원
2. 고조선
3. 삼국시대
4. 남북국시대
5. 고려
6. 조선

1. 기원

한반도 일대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이지만 오늘날 한국인의 형성은 신석기 시대로 보고 있다. 이 때 빗살무늬 토기로 대표되는 독특한 농경 문화가 발해만 연안에서 발달했다.

기원전 8000년 전부터 한반도 및 만주 일원에 거주했던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과 기원전

10세기에 한반도 및 만주 일원에 거주했던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인의 직계 조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인의 기원을 이루는 종족은 **한, 예, 맥족**이다. 이들에 의해 **고조선, 부여, 삼한**과 같은 초기 국가들이 형성되었다. **기원전 15세기 ~ 기원전 10세기**경에는 **청동기** 문화가 유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초대 고대 국가들이 형성되었는데 이 중 **고조선**이 가장 세력이 컸다. 이 외에도 **부여, 삼한**과 같은 나라들이 있었다.

2. 고조선

역사적으로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에 의해 건국된 고조선은 뛰어난 청동기 문화를 자랑했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 후반과 3세기 전반에 **연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서쪽의 거점들을 대부분 내어주고 중심지를 **평양** 지역으로 옮겼다.(이동설)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에게 멸망당했으며, 한나라는 **한사군**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지 상업적인 역할만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고조선 내 세력들 중 일부는 **경주(慶州)** 인근 **진한** 땅으로 이동하여 6개 촌을 이루며 살다가 기원전 37년 사로국을 성립시켜 **신라**로 발전하였다.

한편 만주 지역에서는 **부여**에서 **주몽** 일파가 **졸본** 지역으로 남하하여 토착 **맥족**과 연합 또는 병합하여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주몽** 일파와 **유리** 일파가 **졸본** 지역으로 이동해 오자 **온조**와 **비류** 일파는 남쪽의 **마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마한 북부 지역의 **한강유역** 일대를 중심으로 **백제**를 건설하게 된다.

3. 삼국시대

고조선 멸망 이후 북쪽에는 고구려, 남쪽에는 백제와 신라 및 **가야** 등이 힘을 키웠다. 이 중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표되는 세 나라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시켜 수세기 동안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면서 발전했는데, 이 시기를 **삼국 시대**라고 부른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때 크게 발전하여 만주와 한반도를 호령하였고, **수,당**과 맞서 싸우며 민족의 방파제 구실을 하였다.

백제는 삼국 중 가장 먼저 발전하여 **근초고왕**때에는 **요서, 산둥, 일본**에도 진출하였다. 또한 백제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에 갖가지 문화를 전파했다.

신라는 가야를 복속시키고 후에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삼국의 힘의 균형이 깨어졌으며,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는 당나라를 몰아내 삼국을 통일하였다.

한편, **대조영**은 **고구려인**과 **말갈족**을 거느리고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고구려 계승을 주장하며 **발해**를 건국하여 신라와 공존하였다. 이 시기를 **남북국시대**라고 한다.

4. 고려

10세기에 들어서면서 신라는 세 나라로 분열되는데, 이를 **후삼국 시대**라고 한다. 그 중 **궁예**의 **태봉**이 가장 강력하였으나, 폭정으로 인심을 잃게 되었다. 918년에 **왕건**이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려**로 바꾸고 수도를 **개경**으로 옮겼다. 935년에 고려에 의하여 혼란기를 거쳐 명맥이 끊긴 신라가 멸망하였고, 다음 해에 **후백제** 또한 멸망하여, 후삼국이 다시 통일되었다. 발해 역시 **요나라**에 의해 멸망되었다. 이 혼란기에 건국된 고려는 경쟁 세력들을 물리치고 옛 신라 강역을 확보하며 발해의 유민들도 흡수해 한반도에 최초로 단일 국가를 형성하여 거의 천년 동안 한반도에 단일 국가가 유지하면서 고조선과 삼국 등의 다양한 전통을 계승하여 동질화된 독특한 민족 문화가 이루어졌다.

13세기에는 **원나라**가 침입하여 고려 말까지 원나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결국 고려의 **공민왕**은 반원 정책을 펼쳐 고려를 자주국으로 만들었지만 고려 왕조는 15세기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종식을 고하게 되었다.

5. 조선

그리고 고려를 뒤이은 **조선**은 이성계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수도를 **한양**으로 삼았다. 조선은 **성리학**을 나라의 근본 이념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15세기에는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었으며, 민족문화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비록 **임진왜란**과 두 차례의 **호란**을 겪었지만 조선 왕조는

1910년 까지 존속하였다.

한편, 조선은 19세기 말 열강에게 이른바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1897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제국 공사관으로 옮겨갔던 고종이 덕수궁으로 환궁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광무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통감부를 설치하였으며, 독도를 일방적으로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그 후 이완용, 송병준 등의 친일 내각의 주도로 일본과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여 1910년에 국권을 상실하였다.

중요한 단어 :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참고문헌:

1. (인터넷자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대한민국 정부, 교육, 역사, 정치, 경제, 인구, 언어와 문자, 문화, 사회 자료
2. “한국어 연수교재”, 2001, 국립국어연구원,한국어세계화재단,한국문화예술진흥원.

V. 한국 역사 : 근대 이후

플랜 :

1. 일제점령기
2. 광복
3. 현대사 : 대한민국 정부 변천을 중심으로

1. 일제 점령기

일본에 강제 합병된 후 한국인들은 1919년 3월 1일의 3·1 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대통령제로써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뚜렷한 활동을 벌이지 못해 이승만을 미국의 구미위원부로 밀어내고 김구가 주석이 되어 한국의 독립 운동을 주도하였다. 만주 일대에서 무장 독립 운동을 하여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하였으나 이후 대학살로 침체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함께 대(對)일본 전투에 참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된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한국은 주권을 되찾게 되었다.

2. 광복

광복 이후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던 한국은 알타 회담에서 이루어진 비(非)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갔다. 한반도의 위도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쪽에는 미국의 원조 밑에 대한민국이 국가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으로 커다란 피해를 보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현재까지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남한과 북조선은 서로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평화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3. 현대사 : 대한민국 정부 변천사를 중심으로

< 목차 >

- 1 정부 수립 이전
-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 2.1 제1공화국
 - 2.2 제2공화국
- 3 군사 정부 시기
 - 3.1 5·16 군사 정변
 - 3.2 제3공화국
 - 3.3 제4공화국
 - 3.4 제5공화국
- 4 민주화 이후
 - 4.1 제6공화국
 - 4.1.1 노태우 정부
 - 4.1.2 문민 정부
 - 4.1.3 국민의 정부
 - 4.1.4 참여 정부
 - 4.1.5 실용 정부

1. 정부 수립 이전

한국인은 1919년 3월 1일의 3·1 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독립을 위한 운동과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서 독립을 되찾게 되었다.

즉, 광복 이후 정치적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던 한국은 **알타회담**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의 영향권하에 들어가, **한반도**의 위도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의 영향 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쪽에는 미국의 원조 아래 **대한민국**이 국가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38선 이북에서는 소비에트연방군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전까지, 38선 이남에서는 미국군이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한반도를 다스린 기간을 **군정기**라 부른다. 이 기간 동안 남한에서는 수많은 정치 단체들이 조직되어 이합집산하였고, **제주 4·3 사건** 등 좌우익이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38선 이북에서는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실상 정부의 구실을 하였다. 그 후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뒤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2.1. 제1공화국

제1공화국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에 의해 같은 해 8월 13일에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붕괴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화 헌정 체제이다.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다. 1948년 **국제 연합**(UN)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구성되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어 8월 15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국내 질서 확립과 **일제 시대** 잔재의 청산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 이유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으나 무장경찰대에 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해산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일제 시대 잔재 청산에 실패하였다.

정부 수립을 전후 한 시기에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 4·3 항쟁**과 **여순 14연대 반란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반공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원화**에서 **환화**로 화폐 단위를 바꾸었다.

2.2. 제2공화국

과도 정부는 헌법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장면 내각은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안보 체제를 확립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 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당 내의 정치적 갈등과 계속되는 시위 등으로 이러한 과업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3. 군사 정부 시기

3.1. 5·16 군사 정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사회의 혼란을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이를 **5·16 군사정변**이라 한다. 군부 세력은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민정 복귀의 약속을 저버린 채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의 권력 구조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3.2.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의 실현을 국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등 획기적인 고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경부 고속 국도를 비롯한 도로와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 시설도 확충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들어갔다. 아울러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작물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져 식량 생산도 증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자본 구조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자본 집중이 심화되어 소수의 재벌들이 생산과 소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국내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폐단이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서 국내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민주화 운동의 진전과 함께 국민들의 사회 의식이 높아지면서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기업가의 경영 합리화와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등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내걸고 반공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능률과 실질을 중시하는 기능 양성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자치제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교육의 중앙 집권화와 관료적 통제는 계속되었다. 1968년에 발표한 국민 교육 헌장은 이 시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3.3. 제4공화국

한편,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장기 집권을 추구하던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독재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10·26 사건**이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다.

3.4. 제5공화국

박정희가 암살되자 새로 등장한 이른바 신(新)군부 세력은 1979년 12월 12일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하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공포하였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다시 좌절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 구현, 복지 사회 건설 등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으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여 얼마 안 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제5공화국은 그 운명을 다한다.

4. 민주화 이후

4.1. 제6공화국

4.1.1. 노태우 정부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는 **6월 항쟁**으로 계속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선언**이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소비에트 연방**,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이른바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국제 연합에 남한과 북조선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한편, 정부의 주도와는 달리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4.1.2. 문민 정부

1993년 성립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1994년 남북 정상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이 이루어져 남북 관계가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 정상 회담이 무산되고, 김일성 조문 문제로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

4.1.3. 국민의 정부

1998년 성립된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정 전반의 개혁, 경제난의 극복, 국민 화합 실현, 법과 질서 수호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교류를 크게 활성화시켰다. 이어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는 등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었다.

4.1.4. 참여 정부

2003년에 성립된 **노무현** 정부는 국정 목표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4.1.5. 실용 정부

2008년 2월 25일 실용과 창의를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중요한 단어 : 일제, 광복, 공화국, 군사정부, 문민정부

참고문헌:

1. (인터넷자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대한민국 정부, 교육, 역사, 정치, 경제, 인구, 언어와 문자, 문화, 사회 자료
2. “한국어 연수교재”, 2001,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VI. 한국 행정구역 및 정치

플랜 :

1. 행정구역
2. 한국정치

1. 한국의 행정구역

한국의 행정구역 지도



대한민국 행정구역은 크게 특별시 1개, 광역시 6개, 특별자치도 1개, 도 8개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시로는 서울, 광역시에는 부산(釜山), 인천(仁川), 대구(大邱), 광주(光州), 대전(大田), 울산(蔚山)이 있다.

8개의 도로는 경기도(京畿道), 강원도(江原道),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청남도(忠淸南道), 전라북도(全羅北道), 전라남도(全羅南道),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상남도(慶尙南道)가 있다. 2006년부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로 바뀌어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

2. 정치

대한민국 현 대통령 이명박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첫 헌법을 제정하여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함을 헌법에 명백히 밝혀두고 있다.

2.1. 행정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헌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박정희 때의 유신 헌법은 긴급조치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비민주적이었다. 2007년 현재 발효 중인 헌법은 제6공화국의 수립에 따라 1987년 개정되었다.

또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세 개의 권력 기관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1960년에 대한민국에서 부통령은 사라졌다. 대신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신하고 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다. 2008년 현재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이명박(李明博)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주요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문제를 실현시키려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한민국에는 국무총리가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 국무총리는 한승수이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한다. 또한 공무원 해임 등의 방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2. 입법부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회(國會)는 현재 총 299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2008년 1월 22일 현재 17대 국회는 대통합민주신당이 137석으로 원내 제 1당의 위치에 있으며, 한나라당이 130석으로 그 뒤를 따른다.

2.3.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3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과는 별도로 각종 법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사법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법의 심사를 위해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등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의 재판은 1심의 판결과 동일하다.

대한민국 국군은 군형법에 따라 군사재판을 할 수 있다. 단,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2.4. 정당

2008년 2월 20일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으로는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이 있다.

중요한 단어 : 행정구역, 정치, 입법부, 사법부, 국회, 대통령

참고문헌:

1. (인터넷자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대한민국 정부, 교육, 역사, 정치, 경제, 인구, 언어와 문자, 문화, 사회 자료

2. “한국어 연수교재”, 2001,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Ⅶ. 한국 경제

플랜 :

1. 경제개황

2. 기업

1. 경제개황

1973년 이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철강, 전자, 조선 산업 등이 크게 발달하였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혼합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 수준으로의 고속 경제 성장으로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혹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로 불렸다.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사건을 겪었으나, 서서히 회복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이를 해결했음을 선언했다. 2006년 1월 25일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이 2050년경,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1462 달러가 되어 8만 9663달러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 제조업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한 다음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중심이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EU 등이다.

서비스업 및 금융업도 발달해 다국적 기업이 대한민국에 본사 및 지사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대한(對韓) 투자도 매우 자유롭다. 특히 IT제품 업계에서는 독보적이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현재 이명박 정부는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4월 2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으며, 국회의 동의를 남아있는 상태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NAFTA와 EU다음으로 거대한 자유무역시장을 갖게 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EU와의 FTA 협상을 계속 추진해, 개방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자 기업들은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에 진출해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많으며,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EU)에 가입하여 관세가 철폐되면서 동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에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개성공단은 그것의 하나이다.

2. 기업

대한민국에는 삼성, 현대, LG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활발히 창업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불균형은 해결해야 할 국가적 숙제이다.

중요한 단어 : 경제성장, 기업, 자유무역협정, 외환위기

참고문헌:

1. (인터넷자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대한민국 정부, 교육, 역사, 정치, 경제, 인구, 언어와 문자, 문화, 사회 자료
2. “한국어 연수교재”, 2001,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VIII. 한국 사회

플랜 :

1. 한국사람들의 인간관계
2. 나이와 호칭의 의미
3. 의식주 생활

1. 한국사람들의 인간관계

서구사회가 개인 중심주의라면 한국의 사회는 가족 중심주의 혹은 단체 중심주의라 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가족이나 단체 속에서 개인적인 생활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을 가치있게 여긴다.

한국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어디에 가는지, 몇 살인지, 혹은 결혼했는지 안했는지 등 사적인 질문을 자주 한다. 또한 회사에서는 이력서에 나이, 결혼 여부, 가족 상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하는 어휘도 ‘나의(내) 집, 나의 나라, 나의 남편’보다는 ‘우리 집, 우리 나라, 우리집 양반’

등이 많이 쓰인다. 따라서 회사나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저녁 식사나 파티가 있을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빠지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또한 파티 장소에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러 여러 사람이 식당에 갈 경우에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식사비를 같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식사 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식사비까지 모두 계산하므로 대부분 균등한 부담이 간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단체 중심의 문화가 약화되고 개인주의적인 행동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정에 의해 형성된다. 사적인 친구관계는 물론이고 공적인 관계도 정에 의해 형성될 때 더욱 부드러워진다. 정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이다. 꽃 종류나 가정에서 쓰는 세제류 등의 소모품 혹은 음식을 준비해서 방문한다. 이사간 집을 처음으로 방문할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인은 또한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예를 들어 방문한 손님에게 “과일 좀 드시겠어요?” 라고 주인이 물을 경우, 손님을 과일이 먹고 싶더라도 일단 “괜찮습니다 힘들이지 마세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과일이나 음료수를 대접하지 않으면 더욱 실례가 된다. 사양하더라도 일단 대접을 하는 것이 예의이다. 이처럼 사양하고 강권하는 인간 관계를 한국인의 끈끈한 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2. 나이와 호칭의 의미

나이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회사나 조직에서는 나이보다 능력과 경험을 중시한다. 그러나 직업과 관련이 없는 조직이나 모임에서는 나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해 관계가 없는 모임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관계에서는 나이 많은 어른의 말을 일단 따라야 한다. 그래서 한국어에 존칭어와 존대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외국인의 경우 상황에 맞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존대법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역시 나이에 따른 선후배 관계가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이 된다. 일 년이라도 선배이면 후배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가벼운 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선후배 관계가 설정되면 선배는 후배를 아끼며 보살펴 준다.

나이와 더불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 역시 중시된다. 사회적인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존칭어를 써야 한다. 또한 서구 사회가 사회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친근한 경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름 대신 직위를 부른다. 예를 들어 성 뒤에 직위를 붙여 ‘박 대리님’, ‘김 과장님’ 등으로 부른다. 더 높은 직위의 경우 성을 붙이는 것도 실례가 된다. 예를 들어 ‘이 사장님’이라기보다는 ‘사장님’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관계는 물론 상대적이어서 회사의 회장이라면 사장을 ‘이 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나이와 사회적 지위는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3. 의식주 생활

한 나라의 생활양식은 의·식·주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정신 문화에 이어 한국인의 의생활, 식생활, 주거 생활을 살펴보기로 하자.

회사에 다닐 때 입는 의복은 주로 양복으로, 남성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여성은 양장을 한다. 근로자일 때는 편한 종류의 회사 유니폼을 입는다. 명절 때는 한복을 입기도 한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가까운 이웃집을 방문하거나 시장이나 백화점을 갈 때도 대부분의 한국인은 매우 단정히 차려 입는다. 집 밖에 나갈 때는 언제나 의복에 신경을 쓴다.

식사를 할 경우 반찬은 개인 접시에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먹는다. 밥 공기는 개인별로 따로 있다. 식사 예절을 살펴보면 우선 어른보다 수저를 먼저 들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가족 안에서는 나이 많은 분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면 다른 구성원이 따라서 시작하고, 회사에서는 직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다.

먹을 때 조용히 먹는 것이 예의이나 약간의 소리를 내는 것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으로서

용납되는 편이다. 이야기를 조용히 하는 것도 허용된다.

수저는 너무 짧게 잡아도 안 되고 알맞은 길이로 잡아야 한다. 젓가락은 두 개가 평행이 되게 잡아서 검지를 움직여 음식을 집는다. 또한 수저를 하나씩 들고 먹어야 한다. 두 개 다 들고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또한 식사 중에 코를 소리내어 푸는 것과 트림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긴다. 식사 후 후식은 단 음식보다는 과일과 커피 혹은 차가 나오는 일반적이다.

주거 생활에서 방은 온돌방이며 요즈음은 보일러관이 바닥에 깔려 있어 집 전체를 덥힌다.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며 집 안에서는 양말을 신은 상태로 지낸다. 과거에는 주로 의자 대신 방석과 요를 사용하는 좌식 생활이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입식 생활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이 있는 집에서는 그 방은 요를 쓴다든가 하여 한 집 안에 좌식과 입식이 섞여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있으며 시골에는 주택이 일반적이다.

중요한 단어 : 인간관계, 가족, 식사, 정, 사양, 나이, 호칭, 사회적 지위, 의복, 식사, 주거생활,

참고문헌:

1. (인터넷자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대한민국 정부, 교육, 역사, 정치, 경제, 인구, 언어와 문자, 문화, 사회 자료
2. “한국어 연수교재”, 2001,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3. 이숙자 외 6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2000, 민중서림

IX. 한국 문화

플랜 :

1. 가정의례
2. 결혼풍습
3. 명절과 민속놀이

1. 가정의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통해 치러야 할 과정을 ‘의례’라고 한다. 이 의례는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흔히 ‘가정의례’라고도 한다.

‘백일’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을 축하하는 백일은, 영아의 사망률이 높았던 과거에는 아기가 100일까지 무사히 자란 것을 감사히 여기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백일과 더불어 ‘돌’ 역시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아기가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는 날 치르는 돌은 백일과는 달리 돌잡이를 한다. 돌잡이란 둥근 돌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은 뒤 아기가 원하는 물건을 잡게 하는 것이다. 이는 아기의 장래를 예측하는 행사로서, 쌀이나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실타래를 잡으면 수명이 길다고 여긴다.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라는 의미로 자나 가위, 자수실 등을 상에 올려 놓는다.

백일과 돌이 자녀를 위한 잔치라면 ‘회갑’은 부모를 위해 자녀들이 준비하는 의식이다. 회갑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만 60년이 되는 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수명이 짧았던 예전에는 회갑을 맞는다는 것은 큰 복이었다. 따라서 회갑을 맞는 사람의 자녀들은 부모의 장수를 축하하기 위하여 일가 친척은 물론 부모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한다.

이러한 가정 의례는 고대로부터 수천 년에 걸쳐 이어 내려온 민속 문화이다.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2. 결혼 풍습

결혼이란 적절한 연령에 도달한 젊은 두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대에 존속시키고자 함이 결혼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 혼례는 우선 혼담이 오가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 본인들과 양쪽 집안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신랑집에서 신랑의 사주(생년, 월, 일, 시)를 신부집에 보내어 공식적인 청혼을 한다. 신랑의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혼인날을 택하여 보내는데, 혼인날을 받은 신랑집에서는 이에 따라 신부집에 예물을 보낸다.

혼례 당일에 신랑은 신부집으로 간다. 신랑은 전안청에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놓고 절을 한다. 기러기는 새끼를 많이 낳고 짝을 잃었을 때에도 배우자를 다시 구하지 않은 속성을 상징한다. 절을 한 신랑은 다시 초례청으로 안내되어 혼례식을 치르는데, 대례상 앞에 마주한 신랑과 신부는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의미에서 맑은 물에 손을 씻는다. 이후 서로 맞절을 하고 술을 한 모금씩 세 번 나누어 마신다. 이는 술을 교환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부부 결합을 의미한다.

혼례식이 끝나면 신부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신부가 시부모님과 시댁의 여러 친족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폐백을 드림으로서 혼례의 절차는 끝을 맺는다.

서양의 경우, 멕시코에서의 결혼은 혼인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간의 약혼 기간을 둔 후 혼례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약혼식을 한다거나 예물을 교환하는 특별한 절차는 없고, 이 기간에 집을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결혼 준비를 한다. 1년간의 약혼 기간이 지나면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전통 의상을 입은 신랑과 신부가 성직자 앞에서 부부의 인연을 맹세하고 서로 예물을 교환한다.

3. 명절과 민속놀이

나라마다 각기 다른 명절들이 있다. 그러나 가을 추수 시기에 한 해의 결실을 기뻐하는 명절은 여러 나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추석'은 수확을 즐거워하는 가을의 명절이다. 이때는 바쁜 생활을 뒤로 하고 온 가족들이 한 곳에 다 모인다. 추석은 설과 함께 가족들이 만나는 기쁨과 화해가 어우러진 최대의 명절이다. 그러면 추석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자.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옛날에는 '한가위' 또는 '가위'라고 했다. '한'은 '크다'라는 의미이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이다. '가위'는 신라 때 길쌈 놀이인 '가배'에서 나왔다. '길쌈'이란 실로 베를 짜는 일을 말한다. 신라 유리왕 때 한달 동안 베를 짰다. 그리고 한 달 뒤인 한가위날 그 동안 짠 베의 양을 비교했다.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잔치를 차려준 데서 '가배'라는 말이 나왔다. '가배'는 나중에 '가위'라는 말로 변했다.

추석이 되면 무더위는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이 된다. 가을에는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풍요로운 계절이 된다. 그래서 새로 난 곡식으로 술과 송편을 만들고 햅쌀밥을 짓는다. 이것으로 조상께 차례를 지내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저녁에는 밝은 보름달 아래서 한국의 전통적인 춤을 추며 '강강수월래'라는 노래를 부르며 논다.

현재는 차례를 지내고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추석의 풍습으로 남아 있다. 또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 손녀까지 대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하며 즐기는 날로 지켜지고 있다.

아래는 한국의 명절 목록이다.

설날: 음력 1월 1일

추석: 음력 8월 15일

동지: 양력 12월 22일경

대보름: 음력 1월 15일

한식: 보통 4월 5일 또는 4월 6일

단오: 음력 5월 5일

칠석: 음력 7월 7일

한국의 민속놀이(韓國의 民俗놀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놀이로, 예로부터 주로 서민층에서 명절이나 혹은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예식의 하나로써 여흥을 돋구고자 생겨났다. 언제 이와 같은 놀이가 생겼는지는 오늘날까지 명확하지 않다. 민속놀이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있는가 하면, 어른들만이 하는 놀이, 소년, 소녀들끼리 하는 놀이, 여자들 간에 혹은 남자들 간에만 하는 놀이가 있다. 놀이의 성격을 벗어나 힘과 기술을 겨루는 스포츠로 발전한 것으로는 씨름을 손꼽을 수 있다.

민속놀이의 종류에는 가마타기, 격방, 고누 놀이, 그네타기, 공기놀이, 널뛰기, 닭싸움, 동체싸움(차전놀이), 땅따먹기, 말타기 놀이, 비석치기, 승경도 놀이, 연날리기, 윷놀이, 자치기 등이 있다.

중요한 단어 : 가정의례, 백일, 돌, 회갑, 결혼, 전통혼례, 명절, 추석, 설, 민속놀이

참고문헌:

1. (인터넷자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대한민국 정부, 교육, 역사, 정치, 경제, 인구, 언어와 문자, 문화, 사회 자료
2. “한국어 연수교재”, 2001,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3. 이숙자 외 6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2000, 민중서림

X. 한국 군사, 국방

플랜 :

1. 대한민국 국군

2. 군대사

1. 대한민국 군군

대한민국 국군(大韓民國國軍, ROK Armed Forces)은 [대한민국](#)의 군대이다. 1948년 창군 되었다.(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M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대한민국 육군](#)(ROKA, ROK Army)

[대한민국 해군](#)(ROKN, ROK Navy)

[대한민국 해병대](#)(ROKMC, ROK Marine Corps)

[대한민국 공군](#)(ROKAF, ROK Air Force)

[대한민국 예비군](#)(ROK Reserve Forces)

[대한민국 동원예비군](#)(ROKMRF, ROK Mobilization Reserve Forces)

[대한민국 향토예비군](#)(ROKHRF, ROK Homeland Reserve Forces)

[대한민국 해양경찰청](#)(KCG, Korea Coast Guard / ROKCG, ROK Coast Guard):

평시(平時)에는 [해양수산부](#) 소속이며 전시(戰時)에는 해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 민방위대](#)(ROKCDC, ROK Civil Defense Corps):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 소속의 민병조직으로, 비상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2. 군대사

군사 역사를 살펴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는 군을 건설하기 위한 인적자원이 모자랐다. 따라서 [일본군](#)이나 괴뢰 [만주국](#)에서 복무한 조선인들 출신을 등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때문에 초기 [국방경비대](#)의 주 구성 요인이 거의 일본군 출신 장병일 수밖에 없었다. 과거 일본군 계급을 그대로 인정받은 사람도 있었고, 국군으로 옮기며 1-2계급 특진도 빈번히 행해졌다. 그 외에 당시 만연했던 [실업자](#)들을 끌어들이며 군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1948년 9월 1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가 국군에 편입됐고, 1948년 9월 5일에 각기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자질 있는 장교의 숫자는 부족했고, 그 까닭에 당시에는 장교들의 진급도 빨랐다. 한국전쟁 중에 실질적인 4년제 육군사관학교가 창립되었다.

중요한 단어 : 대한민국 군군, 군사, 군대사, 육군사관학교, 장교

참고문헌:

1. (인터넷자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대한민국 정부, 교육, 역사, 정치, 경제, 인구, 언어와 문자, 문화, 사회 자료
2. “한국어 연수교재”, 2001,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3. 이숙자 외 6명,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2000, 민중서림

ФАННИНГ АХБОРОТ МАНБАЛАРИ

Асосий адабиётлар рўйхати:

1. Жанубий Корея: ўтмиш ва бугун. Ж.Элтазаров, Ким Ин Тэ. Самарқанд -2002, 128 бет.
2. Корея. Земля и люди., 204 стр.
3. «Корея» (справочник) – Кореяская служба информации для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1993 г., 186 стр.
4. «Все о Корее» - Сеул, Королевское азиатское общество, 1980., 238 стр.
5. Торкунов А.В.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ое прочтение).М., 2003.

Тавсия қилинадиган қўшимча адабиётлар рўйхати:

1. Корея. Справочник. Сеул.2006.
2. Концевич Л. Корееведение. М.2003.
3. Цой Ден Ху. Из истории языкознания в Корее. М.2003.
4. Ким В.Н. Ким О.А. Введение в спец. филологию.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Т: ТашГИВ, 2009
5. Видеоматериалы: «История Кореи», «Обычаи и традиции»,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6.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31.03. -01.04.) Т. 2006.
7. Материалы 5 –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30.06.-01.07.) Бишкек.2005.
8. Материалы 6-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корееведению. (03.06-04.06) Алматы.2006.

Интернет манбалари:

1. www.mykorea.net
2. www.panasia.ru/main/south_korea
3. www.wikipedia.com
4. www.okoree.ru
5. www.otpusk.com/ref/kr
6. www.zkorean.com/about_korea
7. www.o-stranah.ru/land/yujnaya_koreya
8. www.200stran.ru/country_item255.html
9. <http://www.kric.ac.kr>
10. <http://www.dlibrary.go.kr/>
11. <http://acip.princeton.edu>
12. <http://www.tipitaka.org>,
13. <http://korea2004.boom.ru>.
14. <http://www.prima-tour.ru>
15. www.infokorea.ru

**“Мамлакатшунослик” фанидан Баёнханова И.Ф. томанидан тузилган
маърузалар матни учун**

ТАҚРИЗ

Мазкур ўқув –услугий қўлланмада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ган назарий ва қиёий маълумотлар 5120100-Филология ва тилларни ўқитиш: корейс тили йўналиши бўйича тахсил оладиган талабаларга мўлжаллаб тузилган “Мамлакатшунослик” фанининг намунавий дастуридан (Тошкент-2012) ўрин олган мавзуларни ўзлаштиришга мўлжалланган.

Мазкур қўлланмада корейс ёзувининг ривожланишининг тарихий босқичлари, корейс ёзувининг ишлаб чиқилиш тарихи, Корея тарихи, аҳолиси, иқлими, маданияти, тили, дини ҳақидаги маълумотлар ва синов тестлари жамланган. Маъруза матнлари Самарқанд давлат чет тиллари институти Ўқув-услугий кенгашининг 27 августдаги мажлисида муҳокама қилиниб (№1- қарори), корейс тили таълим йўналиши талабалари учун қўшимча ўқув адабиёти сифатида нашрга тавсия этилган.

Ўйлаймизки мазкур қўлланма корейс тили бўйича янада чуқурроқ билим олиш истагида бўлган талабалар учун қулайлик яратади.

Тузувчи: Баёнханова И.Ф.

Тақризчи: ф.ф.н., доцент А. Туробов